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법주사에서는 살아 있는 동안에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불교의 수행의식인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수행과 회향을 실천하는 “자리이타행”으로 살면서
지은 죄와 빚을 갚는 의식으로 자신의 업을 참회하고 앞으로 악업을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보시를 통해 공덕을 쌓는 의식입니다.
또한 단순한 신앙이 아닌 신행信行으로 스스로 실천하는 불교의 가장 적합한 실천행으로써
불자라면 반드시 동참해야 할 의례입니다.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계묘년 윤2월에 맞춰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라는 인연을 통해 법주사 불자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회하며
함께 보시하는 공덕을 통해 스스로 복을 짓고 스스로 복을 받는 불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생전예수재 봉행일정

- 입재 : 2월 20일 (음력 2월 1일) 월요일
- 1재 : 2월 26일 (음력 2월 7일) 일요일
- 2재 : 3월 5일 (음력 2월 14일) 일요일
- 3재 : 3월 12일 (음력 2월 21일) 일요일
- 4재 : 3월 19일 (음력 2월 28일) 일요일
- 5재 : 3월 26일 (음력 윤2월 5일) 일요일
- 6재 : 4월 2일 (음력 윤2월 12일) 일요일
- 회향 : 4월 9일 (음력 윤2월 19일) 일요일

■ **동참금** : 1인 100,000원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3 | 4

부처님 말씀 선악의 열가지 / **이달의 법문**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라 / **주지스님 법문** 상대방에게 배우기 / **감로의글** 걷기명상 / **걸망메고** 방생의 의미 / **수행여화** 봄꽃에게 인사하시길 / **법주사 소식** /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능인전 나한님 개채 불사** / **법주사 산신대재** /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방생순례**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모연문** / **생전예수재 49일기도 봉행**

선악의 열가지

선악에 대한 것에 열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열 가지인가 하면,
몸으로써 하는 것이 세 가지, 입으로써 하는 것이 네 가지,
생각으로써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몸으로써 하는 세 가지는
산목숨 죽이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 음탕한 것을 말함이며,
입으로써의 네 가지는 두 가지로 말하는 것, 악한 욕설을 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비단같이 말을 하되 내용이 다른 것을 말함이며,
생각으로써 행하는 세 가지는
질투하는 것, 진심 내는 것, 어리석은 것이니
이것이 열 가지 악한 것이 되므로,
악한 것을 성도(聖道)에 돌리면 열 가지 악한 것이
곧 그대로 열 가지 착한 것이 되는 것이다.

〈사십이장경〉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3 4 | 통권 375호



2 부처님 말씀 선악의 열가지
4 이달의 법문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라 법주사 조실 월서 대종사
10 주지스님 법문 상대방에게 배우기 정도 스님
12 감로의글 걷기명상 장산 스님
14 걸망메고 방생의 의미 진정 스님
16 수행여화 봄꽃에게 인사하시길 현진 스님
18 법주사 소식 /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19 법주사 행사일정
20 법주사 능인전 나한님 개채改彩 불사
21 법주사 산신대재
22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방생순례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23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 모연문
24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7(단기4356)년 4월호 통권 375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라

월서 대종사 법주사 조실



信爲功德不壞種
信能生長菩提樹
信能增益最勝智
信能示現一切佛

믿음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
믿음은 보리나무를 생장케 하며
믿음은 수승한 지혜를 증장시키고
믿음은 모든 부처를 시현케 한다.

흔히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 해서 믿음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야말로 믿음의 종교이니 믿음은 불교의 출발이자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믿는 방법과 대상이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정확한 말뜻은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신神을 믿는다든가 바위나 나무를 믿는다든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신을 믿는다는 말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초 경험적인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바위나 나무를 믿는다는 말은
그 속에 어떤 신성神聖이 들어 있어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이고 초 경험적인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에 의한 진리,
즉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그 내용을 설법한 진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초월적 신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에 의해 가르쳐진 진리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에 의해 가르쳐진 진리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 말하려면
팔만사천의 경전을 다 소개하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현실적 고통이 다양한 만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팔만사천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고통이 수천, 수만 가지라면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도 수천, 수만가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또 병에 따라 약을 준다고 해서 응병여약應病與藥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중생의 고통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한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건져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무시겁래로 삼계를 떠돌면서 윤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삼계는 아래에서부터 살펴보면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여섯 가지 세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업보에 따라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착한 일을 하면 천당에 간다고 하는데
이를 불교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천상도 중생이 영원하게 머무르는 곳은 아닙니다.
천상이란 선업을 지은 공덕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복진소멸福盡消滅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복진소멸이란 지어 놓은 복이
다하여 없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비유하면 은행에 예금을 해두었다고 해도 한푼, 두푼 꺼내 쓰면
마침내 잔고가 바닥이 나서 빈털털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천당에 가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는 다시는 생사윤회가 없는 열반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해탈'이라고 하고, '성불'이라고 하고,
또 그런 세상을 '극락세계'라 합니다.
불교는 수행을 하는 목적이 천당에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열반, 해탈, 성불을 하고 극락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세계에 갈 수 있을까요?
성급한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런 세상에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과정을 밟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유하면 봄에 씨를 뿌려 여름에 김을 매고
가꿔야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옛말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의 현실에서 극락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면
한 계단 한 계단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는 것인가?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고해의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를 믿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신행信行'이라고 합니다.
신행은 가끔 '신앙信仰'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자, 즉 '신을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믿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불교는 알다시피 신과 같은 절대자가 없습니다.
불교가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오래전부터 '신행信行'이란 말을 씁니다.
신행이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과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과 실천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해解'와 '증證'이 추가됩니다.
해란 이해한다는 뜻이고 증은 증득한다, 또는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신信, 해解, 행行, 증證을 불교에서는 '수행사과修行四科'라고 합니다.
불교의 믿음과 실천은 이 네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일체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시비와 분별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있는 그대로 가
진리의 모습이고, 이 극락과 지옥이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인가?
부처님과 역대조사가 그런 분들입니다. 부처와 조사는 어떤 말씀을 해도
예를 들어 설사 화를 내고 야단을 쳐도 자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해도 속으로는 미움과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말이 아닌 몸으로 실천으로 증득해야 합니다.
신, 해, 행, 증의 네 단계는 불교가 이상으로 삼는 진리의 세계를 완성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이해를 낳고 바른 이해는 바른 실천을 이끌어 주며,
바른 실천은 마침내 바른 증득으로 완성됩니다. 이런 상태를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무시하고 열매만 얻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과보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백유경〉에 나오는 비유대로 3층만 지으려는 어리석음입니다.

옛날 어떤 미련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부잣집에 놀러 갔다가 화려한 3층 누각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물이 저 사람만 못하지 않으니
나도 3층 누각을 지으리라고 마음먹고 곧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수들이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누각을 짓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주춧돌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부자는 목수들에게 따졌습니다.
"왜 3층을 짓지 않고 땅이나 파고 주춧돌이나 놓는가?"
"3층을 지으려면 일 층을 짓고 이 층을 짓고 그다음에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부자는 목수들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나는 1층이나 2층은 필요 없다. 나는 오직 3층만 필요하니 3층만 지어내라."
그러자 목수들은 그런 집은 지을 수가 없다며 짐을 싸 들고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더디더라도 순서에 맞게 일을 하고
과정을 잘 거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성과에만 골몰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교 수행의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거짓을
진실로 아는 잘못된 믿음과 이에 의한 빗나간 생활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과 철저한 깨달음에 의한 적극적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중생은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신, 해, 행, 증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고 원만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주지스님 법문

상대방에게 배우기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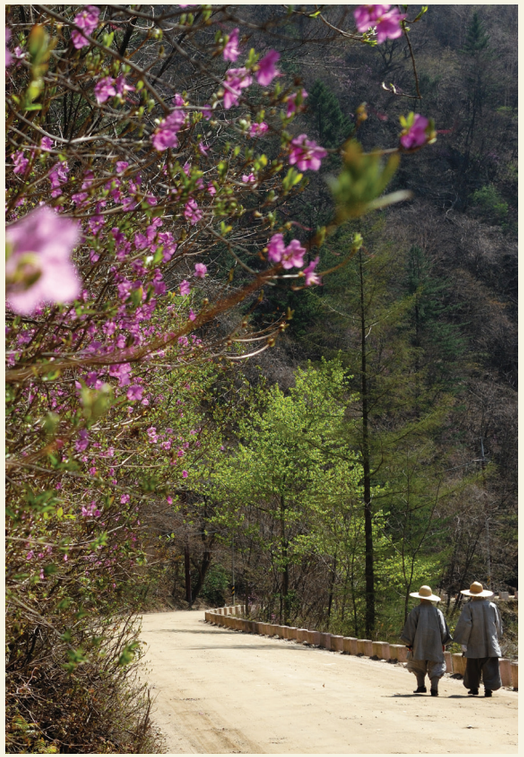
인류의 진화는 생존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살아남기 위해 투쟁한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가기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긴장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합니다.
그 스트레스 속에서 언젠가는 벗어나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꿈꾸며 견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와 상대방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해야 합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생존이며 진화이고
우리의 삶이며 그 속에 진정한 행복과 평온이 있습니다.



걷기명상 [행선行禪]

장산 스님 법주사 사리각

걷기명상이란 옛날부터 스님들이
행해오던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다. 그러나
첫째, 걸을만한 장소나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그 장소가 입지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셋째, 장소가 한정되어 있을시, 법당이나 혹은
큰 건물을 끼고 탑돌이 식으로 하는데, 탑돌이도
걷기 명상에 속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돈다.
넷째, 걷기명상이란 동정動靜을 겸비兼備한
수행법으로 심신心身을 공共히 치유治癒한다.
다섯째, 염불念佛을 하든지 화두話頭를 들던지
일관一貫되게 한다.
여섯째, 옷은 계절에 맞는 간편복으로,
혹은 단체수련 시에는 단체수련 복으로 함이 좋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복장으로 진행해도 무방無妨하다.



(1) 걷기명상의 염불 念佛

① 나무 석가모니불
② 나무 아미타불
③ 나무 미륵존불
④ 나무 약사여래불(나와 남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⑤ 나무 관세음보살
⑥ 나무 지장보살
⑦ 나무 문수보살
⑧ 나무 보현보살
⑨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등등으로,
이 가운데 한 가지만 반복적으로 염송한다.

(2) 걷기명상 화두 話頭

① 나는 누구인가?
②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③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
④ 그 일은 일생을 바쳐야 할 만한 가치가 있나?
⑤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
⑥ 청정본연淸淨本然커니 운하云何 홀생忽生
산하대지山河大地닛고?
⑦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본지풍광本地風光?
(부모님이 날 낳아주기 전에 나는 누구였나?) 등등
이 가운데 한 가지만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화두를 들어야 한다.

※ 걷기명상의 행법行法은 탑돌이식과 만행식이 있는데, 탑돌이식은 말 그대로 탑돌이를 하든지 아니면 법당이나 큰 건물을 끼고 도는 형식이고, 만행식萬行式은 멀리 산책 나가듯이 하는 행법이다. 어느 방법이든 다 좋다. 본인이 선택할 일이다. 염주를 헤아리면서 하면 매우 훌륭하다.

(3) 걷기명상의 결과

① 몸과 마음이 함께 튼튼해진다.
② 오래된 고질병도 종종 치유된다.
③ 마음에 집중력이 향상되어 매사에 자신감이 넘친다.
④ 깊고 오묘한 참선수행의 밑거름이 된다.
⑤ 심신이 안락하고 굳건해 짐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형성한다.
절하는 수행도 이와 비슷하나,
걷기명상은 육체적 부담이 적고 절하는 수행은
좀 더 적극적이고 육체적 부담이 강한 수행법이다.
⑥ 수시로 혹은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시간은 스스로 정할 것)
⑦ 걷기명상이 끝나면, 기공체조나 호흡법으로
정리하고, 간단히 샤워를 하고 다음 일과를 챙긴다.

걷기명상은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기가 좋고 물이 맑고 수목이 있고 아름다운
경관이 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생활주변 환경을 잘 살펴서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 없어도 조용한 학교 운동장이나 그 밖에
관공서 주변건물과 공원주변을 살펴서 걷기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옛날에 수행이 깊은 큰 스님들께서도
아주 힘든 시절에는 '만행' 혹은'탁발' 같은
명칭으로 행선行禪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청산첩첩미타굴靑山疊疊彌陀窟
창해망망적멸궁滄海茫茫寂滅宮
물물염래무가애物物拈來無罣碍
기간송정학두홍幾看松亭鶴頭紅

푸른 산 깊고 깊은 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법당이요.
끝없이 넓고 푸른 바다는 모든 부처님의 적멸보궁이다.
물물이(모든 일들) 오고감에 장애됨이 없으니
소나무 정자, 학의 머리 붉음을 몇 번이나 보았던고.

– 원효대사 –

방생의 의미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부처님 말씀에 백천만겁이 지나더라도
지은바 업은 없어지지 않아서 인연이 되어서
다시 만날 때에 과보를 되돌려 받는다고 하셨으니
나의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죽을 목숨을 살려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정성껏 보살펴주어야 한다.
이처럼 베푸는 것을 방생이라 하며 그 공덕은
무한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
〈범망경〉에 '항상 방생을 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세상 사람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호하여
괴로움에서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방생에 대해 설하고 있다.
이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실천 덕목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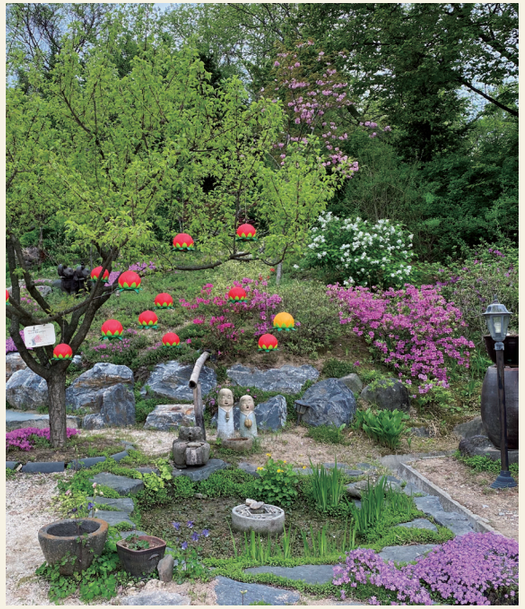
그러면 방생을 하면 어떤 복덕이 있는가.
첫째는 방생하는 이와 그 가족의 수명이 길어진다.
둘째는 병고액난에 시달리는 중생이 완쾌된다.
셋째는 마음이 맑아져 지혜가 솟아난다.
또 다른 부처님의 전생 기록 '유수 장자'편에 보면,
유수 장자가 중생의 병을 고쳐주려고
천지를 돌아 다니던 중,
어느 연못의 물이 말라 물고기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코끼리 20마리로 계곡물을 길어다
부어 살려 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소위 방생放生의 시초이다.

방생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기쁨의 환희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이 태양처럼
밝아진다고 한다.
불교의 방생법회는 "나로 인하여 죽은 목숨이나
나로 인하여 죽게 된 생명"에 대한 참회의 의미도
담고 있다. 불교는 생명 평화, 인간 존중의 정신을
지향하는 종교이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로
그 첫 번째 계율이 "살생하지 말라" 불살생이다.
정확한 뜻은 "산목숨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우리는 농경문화이다.
알 수 없는 질병과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신들에게 산목숨을 바쳐서 기우재 등을 지내며
각종 재해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산목숨을 제물로 바쳐서
불행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는 생명 평화를
제일 근본으로 삼고, 행복의 길을 찾을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방생은 그동안의 나를 참회하고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따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나의 복덕으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방생은 잡혀 있는 생명을 놓아주고,
죽음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주고,
살기 어려운 생명체들이 고통 없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는 선행의 실천이다.
이것은 단지 물고기나 동물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인간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방생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불살생 계율로써,
생태적 상호작용을 반복하는 행위이다.
즉 방생이 경전의 불살생계에 따라서
살생을 금하는 것은 소극적인 선행이며,
방생 그 자체는 적극적인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과 업에 따라서
육도 윤회한다. 모든 생물체는
불성(부처님의 마음)이 있으며
모두 다 스스로 존귀하다.
이것이 불교의 연기이고 자비이다.



봄꽃에게 인사하시길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우리 정원에 해야 할 계획을 적어 놓은 일기장이
따로 있다. 그 목록에는 경계석 만들기,
작은 연지 파기, 밭둑길 쉼터 조성하기,
맷돌 석탑 쌓기 등 봄날의 과제들을 적어 놓았다.
그리고 '시 읽는 정원'도 구상했는데, 이를테면 꽃과
나무를 예찬한 시인들의 글을 새겨 한곳에
모아 놓는 형식이다. 이 생각이 현실로 실행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만들기는 할 것이다.

일기장에 써 놓았던 이러한 몇 가지의 계획들을
실천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화밭 경계석을 정비하는 김에 수도 배관을
묻어 밭 중간중간마다 급수대를 만들었다.
농작물에 물 줄 때마다 물통에 길어다 주는 일이
성가시고 힘들었는데 이제 일품을 좀 줄이게
되었다. 이런 시설 덕분에 올해부터는 상추,
고추밭에 물을 흠뻑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인부들이 있을 때 무너진 축대와 고장 난
화장실 등을 수리했다. 늘 손보고 고쳐도 매년
보강할 일이 생긴다. 사소한 불편이라도 제때
손대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루고 외면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수가 있다. 아주 급한 사항만 아니라면 봄날에
몰아서 이런 일들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맘때가 되면 늘 이런저런 공사로 분주하다.
어제와 오늘은 나무수국(라임라이트)을 들여와서
밭둑길에 심었다. 가까운 세종시 전의면의 농장에
부탁하여 한 트럭 싣고 왔다. 아마도 꽃이 피면
멋진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의 기후는 일반 수국을 키우기엔 적당하지 않아
겨울엔 노지 월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무수국은
강한 추위에도 꽃눈이 얼지 않고 잘 견디는
수종이다. 제주도나 남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국은 여기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그나마 나무수국으로 그 풍경을 대신하며
위로받을 수밖에 없다.
초여름, 꽃이 귀한 계절에 나무수국이 한가득
피어 있으면 정원의 한 몫을 단단히 하리라 믿는다.
지난해 몇 군데 심었는데 경관이 그런대로 산사와
잘 어울려서 올해는 목돈을 들여 군락을
만든 것이다. 이번 봄부터는 이놈들 들여다보는
재미로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되었다. 새 식구를
데려와서 우리 땅에 적응할 때까지 눈여겨
봐주는 즐거움도 전원생활의 기쁨이다.
세상에는 '불한당'들이 많다. '아니불不, 땀한汗,
무리당黨'이니까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차지하려는 고약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당하게 노력하고 그 대가를 바라야 하는데 그저
공짜로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정원 일도 똑같다. 땀 흘리지 않고 올바르게
가꾸어지는 곳은 없다. 손길 가는 만큼
보답하는 것이므로 꽃을 사랑하는 일엔
불한당 정신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하다.
오늘은 초하루 법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바람도 없고
날씨도 따뜻했다. 때마침 미선나무가 피어서
도량이 등불을 켜 놓은 듯 환하다. 죽은 듯
침묵했던 나무에 꽃눈이 열리고 꽃송이가
달리는 것을 보면 그 경이에 저절로 감탄사를
연발하게 된다. 시간의 강을 건너 봄날에 재회하는
꽃들이 그래서 더 반갑고 아름다운 것이다.
저 아래 밭 언덕에 능수벚나무를 또 심었다.
근교의 스님이 두고 간 신춘 선물이다.
매년 능수 벚나무를 심었는데 뜻밖의 선물에 봄맞이
기념식수를 한 셈이다. 이같이 우리 정원엔 크고
작은 나무들이 각자의 사연을 지닌 채 나이를
보태며 자라고 있다. 이런 나무들은 내가 이곳에
없어도 이 도량의 역사를 이어 갈 주인들이다.
훗날 관리자가 바뀌어 무참히 베어내지 않는다면
나의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해 줄 벗들이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물었다.
"매화꽃이 다 피면 모두 몇 송이나 될까요?"
선뜻 대답을 못 하길래 이렇게 말했다.
"만개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곳저곳에서 꽃이 만개했다.
올핸 유독 산수유의 색감이 선명하여 물감을
풀어 놓은 듯 화사하다. 이렇듯 온 도량이 봄 축제에
돌입하여 하나둘 자신의 개성을 자랑하고 있다.

一枝含藏春
一花一世界
가지마다 봄을 달고 있으니
꽃 한 송이마다 하나의 세계가 있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설곡스님의 화첩에 있는
글귀다. 꽃송이를 밀착하여 관찰해보면 하나의
우주를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신비롭다. 오로지
자신만의 세계를 은밀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꽃과 마주한다는 것은 광활한 우주 속을
감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어찌 찬란하고
숭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인생에서
다시 만난 봄, 꽃들에게 인사하고
오래오래 눈길 주시길.



3월 20일 불교대학, 경전반 입학식



3월 21일 미타사 희원스님 주지 재임명



3월 22일 초하루

법주사 솔향기 다도회 회원모집

법주사에서는 문화의 꽃이라 칭송되는
다도회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신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 010-5498-5546 (회장)
010-7400-1388 (총무)

법주사 합창단원 모집

불심이 있고 불법홍포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함께해요"

연락처 : 010-5262-0871 (단장)
010-4019-2033 (총무)



포근하고 따듯한 법주사의 봄

봄의 향기를 머금은 법주사

법주사의 따듯한 봄은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와 많이 닮았습니다.
따스한 햇볕과 법주사의 아름다운 전경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법구경

2023. 4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윤음 2.11 광명진언기도
2 12 생전예수재 6재	3 13 다도반법회	4 14 합창단법회	5 식목일 15 청명	6 한식 16	7 17	8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9 19 생전예수재 회향	10 20	11 21	12 22	13 23	14 24 관음재일	15 25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16 26	17 27 다도반법회	18 28	19 29	20 곡우 3.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보현회법회	21 2	22 3 신중기도회향
23 4 30 11	24 5	25 6	26 7	27 8 약사재일	28 9	29 10 산신재입재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법주사 능인전 나한님 개채改彩 불사







속리산 법주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 앞에 능인전이 있습니다.
이곳 능인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에 두분의 보살님 그리고
열여섯분의 나한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곳의 보살님과 나한님은 부처님과 같이
금으로 옷을 입고 계시지 않고
색이 있는 옷을 입고 계셔서
이러한 옷을 새로 입혀드리는 불사를
개채改彩라고 말합니다.
금번 법주사 능인전 개채불사는
보살님 2분과 나한님 16분에게
새롭게 옷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러한 중생들의 불사의 마음이
나한님들께 닿아 불사의 인연 중생들에게
그 공덕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여 개채불사와
기도의 원력으로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 **문　　의** : 원주실 : 043-543-4755
- **동참계좌** : 농협 3511139-7120-53 법주사
- **동 참 금** : 1인당 **200**만원

법주사 산신대재

산은 신의 세계인 하늘과 인간의 세계인 땅 사이에 자리 잡아
그 두 세계를 연결한다고 하여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진 공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산을 외경심과 존중으로 대하고 산은 어머니처럼 우리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특히 국가에 어려움이 오거나 천재지변을 극복해야
할 때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 반드시 중요한 명산에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한반도의 뼈대라 할 수 있는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속리산은 많은 왕들이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 기도하던 명산으로 계묘년 법주사 산신대재를 맞아 산신님께 기도를 통해
풍요와 안녕을 기원한다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산신기도입재** : 2023년 **4**월 **29**일(음 3월 10일) 토요일
- **산신기도회향** : 2023년 **5**월　**5**일(음 3월 16일) 금요일
- **동　참　비** : 3만원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문　　의** : 원주실 043-543-4755

■공양물 올려드립니다.

■공양미 : 20kg 8만원 / 10kg 4만원　■국　수 : 1박스 4만원
■미　역 : 1kg 2만 5천원　■과일 / 떡 / 채소 등 공양시주 받습니다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2023년 **4**월 **1**일(윤음 2월 11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2**만원

방생순례





- **일 시** : 불기2567(2023)년 **4**월 **13**일(윤달 음2월 23일) 목요일
- **장 소** : 여주신륵사
- **참배사찰** : 경기도 화성 용주사, 만의사
- **공 양** : 여주신륵사준비
- **동 참 금** : **5**만원(교통비, 방생동참금)
- **출 발** : 속리산 농협 - 오전 7시 / 대전 선샤인호텔 - 오전 7시 20분
  청주 체육관 - 오전 7시 30분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2023년 **4**월 **15**일(윤음 2월 25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 모연문

계묘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속리산 법주사 청정도량에
자비의 등불을 밝히려고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등불공양의 공덕으로 진리의 법광이 비추어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대웅보전** : 30만원
- **능 인 전** : 20만원
- **미 륵 전** : 10만원
- **삼 성 각** : 10만원
- **약 사 전** : 10만원
- **명 부 전** : 10만원
- **영 가 등** : 1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